

실전 사례로 배우는 계약 리스크 대응 가이드 - 4 편

“환율이 급변해 손해를 봤습니다” - 환위험을 계약서에 반영하는 법

1. 실전 사례: 환율 급변으로 손실을 입은 수출기업

국내의 화장품 제조업체 G 사는 일본 바이어 H사와 수출계약을 체결하며, 총 500 만 JPY(일본 엔화)로 수출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계약 당시 환율은 1,000 원/100 엔이었지만, 선적 시점에 환율이 930 원/100 엔으로 급락하면서 G 사는 총 약 350 만 원의 환차손을 입게 됩니다.

문제는 계약서에 환율 관련 조항이 전혀 없었고, G 사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신뢰도 하락 및 클레임 우려로 인해 손해를 감수하고 출하를 진행했습니다.

2. 문제 분석: 환율 리스크는 ‘계약서에서 다뤄야 할 리스크’다

환율은 무역 거래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외부 변수입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에 리스크가 커집니다.

- 계약 통화가 외화 기준(JPY, USD, EUR 등)이고, 수출기업은 원화 결제 기반일 때
- 계약~출하~수금까지 수개월 간격이 있는 장기 납기 제품
- 수출단가를 고정했지만, 환율 변동성이 높은 국가와 거래할 때

이때 환율 리스크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손해는 전적으로 수출자가 부담해야 하며, 환차손은 수익 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대응 전략: 환율 조건을 계약서에 이렇게 반영하세요

항목	계약서에 명시할 예시 문구
계약 통화 명시	The payment shall be made in USD.
기준 환율 설정	This contract is based on the exchange rate of 1,300 KRW/USD.
환율 변동 범위 조항	If the exchange rate fluctuates more than $\pm 3\%$ from the base rate, the price shall be renegotiated.
환헤지 명시	Buyer agrees that the Seller may hedge currency risk at their discretion.

4. 사전 예방 팁: 환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실무 전략

- 수출 계약 시 반드시 기준 환율 및 변동 허용 범위 명시
- 환율 급변 시 자동 조정 또는 재협상 트리거 조건 설정
- 환헤지(FX Forward, 옵션 등) 적용 여부를 내부 검토 후 계약서에 반영
- 계약 통화를 USD → KRW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협의 여지 확보
- L/C 조건부 환율도 결제일 환율 기준인지 통지일 기준인지 명확히 하기

마무리 정리

무역 계약에서 환율은 ‘운’에 맡길 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환위험을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야말로 실무자의 전략적 방어 수단입니다. 기준 환율, 변동 허용 폭, 재협상 조항 등을 명확히 작성해두면, 위기 상황에서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명분과 수단이 생깁니다.

다음 편 예고

 5 편: “선적은 했는데, 수입자가 통관을 못 합니다” – 서류 불비의 책임은?
무역 서류 누락으로 발생한 통관 지연과 클레임의 실제 사례, 책임 소재와 문서 작성 체크포인트를 다룹니다.